

“線을 禪으로 여기며 살았지”

米壽展 演 단청장 만봉스님

불화 외길 81년... 인물묘사 뛰어나

“선(線) 하나하나를 선(禪)으로 여기고 살아왔어. 붓 쥐고 보니 80도 잠깐이야.”

신촌 봉원사 앞 화실, 3백호 이상 커다란 그림에 얼드러 쉼새한 붓놀림을 하고 있는 만봉스님(종묘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이 특유의 함박웃음으로 맞으며 한마디 푹 던진다. 유난히 길고 새까만 눈썹이 인상적이다. 노름에도 여전히 안경없이 작업한다. 눈동자의 경기가 노안(老眼)답지 않게 뚜렷하다.

‘단청’ 하면 ‘만봉(萬奉)’을 떠올릴 정도로 단청과 공생을 함께 해 온 만봉스님이 미수(米壽·88세)를 맞았다. 지난 1916년 7살의 어린 나이로 불화에 입문한지 81년. 이를 기념히 대구 시민회관 상설전시관에서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만봉불화전이 열리고 있다. 지방에서는 처음 열리는 노 대가의 전시회이자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스님은 특히 인물묘사가 뛰어난 것으로 유명하다. 부드럽고 원만한 표정이 생생하게 살아나 마치 따스한 숨결을 금방이라도 느낄 것만 같다. 풍부한 표현과 화려한 채색의 조화는 일반 회화와는 또다른 감동의 상을 준다. 전시회는 끝나는데 부처님 모시는 불사가 또 있는가.

“감정도 거친 악수밖에 모시는 괴물 부처님이야. 그저 밥먹고 나면 그리고 밥먹고 나면 색칠하고 하지. 부처님그리는 일은 몇시간을 꼬박 해도 힘든 줄을 모르겠어. 그저 황희실만 나니 참 묘하지. 부처님 제자인 복(福)도 큰 대 공경 재물 보살님들의 상호그리는 일과 부처님 집을 장엄해 왔으니 복중에서도 그런 복이 없지.”

종묘무형문화재 단청장(丹靑匠)이 생긴 것이 지난 72년. 만봉스님은 김일삼, 원덕문스님(두분 다 입적)과 함께 기능보유자로 첫 지정받았다.

만봉스님의 화업은 7살때 동진출가하면서 시작했다. 서울 종로에서 이윤식씨의 5대독자로 태어났으나 명이 짧아 질로 가야만 장수할 것이라는 점점의 말에 부처님꼴에 보내진 것. 전생의 인연 탓일까. 당시 유명한 금어 김예문스님의 눈이 들어 그 문에서 단청과 불화를 익혔다.

“불화를 보니 그저 좋았어. 그래서 스승이 시키는대로 꾸(준비) 했지. 무슨 일이나 무심(無心)으로 해야 돼. 그렇게 하다보면 어느새 이득이 붙는 거지. 요새 배우는 사람들은 근기도 없지만 너무 쉽게 이득하려고 해. 하나를 하더라도 진득하니 해야하는데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하다가 좀 익혔다 싶으면 잔반부터 걸지.”

10년동안의 힘든 수련을 이겨내고 18살의 나이로 금어가 됐지만 스승 예문선사는 그에게 금어로서의 일을 허락치 않았다. 20세가 넘은 후에야 일이 맡겨졌다. 청나라이론 해본적이 없을만큼 엄격한 스승은 재자가 고만에 빠질까 장래를 생각한 때려냈다.

만봉스님은 단청과 불화 다 능하지만 사실 단청이 더 고난도의 기술을 요한다. 불화를 배워 숙달이 되면 거기서 자동적으로 단청 기술이 나온다. 처음 입문하면 제1단계인 시왕초(十王草), 제2단계인 천왕초(天王草) 제3단계인 여래초(如來草)라는 세 단계의 고된 수련기를 거쳐야 된다. 시왕초는 다시 3단계로 나뉜다. 첫째 동공기라 하여 불화원본위에 행자를 놓고 그대로 선을 따라 그리는 과정이다. 이것은 필력을 기르기 위한 것. 더도 말고 1000장을 그려야 한다. 둘째는 모사(模寫)로써 그림을 보며 원본 그대로 그리는 과정. 셋째는 자초(自草)로써 자신의 그림규격을 맞추고 마음대로 그리는 과정이다. 1단계에서 3천장 이상을 그려야 한다. 2단계 천왕초는 사천왕상을 3000장 그리는 것이고 3단계 여래초는 부처님상을 3000장 그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끈질기고 혹독한



만봉스님이 그린 상단행화(쿠분도).

“옛 불화·단청 색 바랬어도
옛그제 그린듯 살아있어요
요즘은 기술만 중요시하지
흔 것든 작품 드물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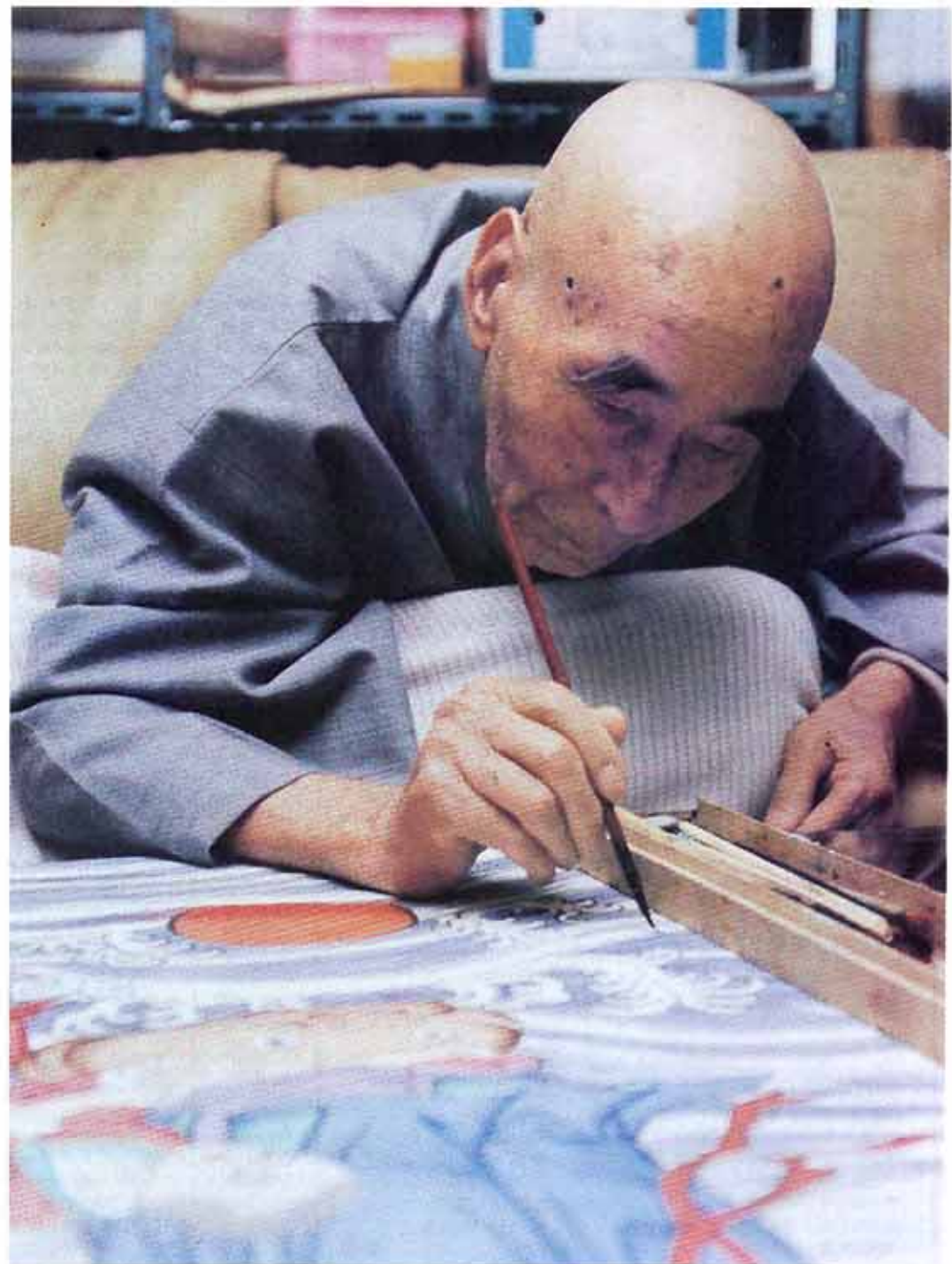


단청문양 중 금문(錦紋).

그제 그린듯 기(氣)가 살아있어. 그제 꼭 기술담만은 아니지. 예전 사람들은 지극한 신심으로 그렸거든. 그러나 살아있을수 밖에. 요즘은 기술만 중요시하지. 흔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림은 아무리 잘 그려도 헛거야. 그렇기 때문에 불화를 그리기 전에는 목욕재계와 좌선으로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고 일심(一心)이 되어 하는거지.”

정성보다는 배가번쩍하고 요란한 단청불사가 빈번한 요즘 세태에 주는 경책이 매섭다.

글: 이경숙 사진: 고영배 기자



丹青이란 고구려벽화서 시작... 72년 무형문화재로

만약 사람이나 고궁에 화려한 단청이나 그림이 없다면 얼마나 밋밋할까. 사람은 재물 보살들이 주석해 있는 화장새다. 화장새같은 사람을 화려하고 위엄있게 하는 여러가지 채색과 아름다운 문양을 넣어 장엄하는 양식이 단청과 불화다. 또 우리나라처럼 건물 외벽의 장식에 색채를 사용하고 궁중 경회루 남대문 종로 보신각 등 고건축의 단청과 불화를 붙여왔다. 스님이 공생을 산 봉원사 단청은 무엇보다도 심혈을 기울인 역작.

무슨 일이나 마찬가지로 단청과 불화는 정성이 제일이다. 수십, 수백년동안 사찰을 장엄하는 단청과 불화는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늘 우려려 경배하는 성스러운 대상이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안 된다.

고려배 채색과 문양은 주로 녹색과 청색 그리고 붉은색으로 구획체 기법을 사용해 아라베스크계 단청문을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격조로 나타내고 있다. 조선시대 사찰 단청은 문양의 구성과 장식이 극도로 화려하고 색채의 사용이 매우 다채롭고 원색적인 시대별 특징을 지닌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시작된 우리나라 단청은 고유와 독자성과 민족의 미적 감각을 보여주는 독특한 문화적 특색을 띠며 정신적 감성표현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고려배 채색과 문양은 주로 녹색과 청색 그리고 붉은색으로 구획체 기법을 사용해 아라베스크계 단청문을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격조로 나타내고 있다. 조선시대 사찰 단청은 문양의 구성과 장식이 극도로 화려하고 색채의 사용이 매우 다채롭고 원색적인 시대별 특징을 지닌다.

한국건축의 한 분야를 이룬 단청 기능은 그 중요성이 인정돼 지난 1972년 종묘무형문화재 제48호로 지정됐다. 단청이나 불화를 그리는 스님을 금어(金魚) 또는 화승(畫僧)이라 부른다. 금어란 시왕초부터 보살초 여래초 등 9천장을 그리는 과정을 수료한 화사(畫師)에게 주어지는 호칭으로 10여 단계에 이르는 단청작업의 재공들을 총 지휘하는 일을 하게 된다.

현재 단청장은 만봉스님을 비롯 해 각스님(93·봉도사 사명암), 석정스님(72·부산 선주산방)등 스님 세분과 최근 지정된 홍정석씨(58·92년 입적한 원덕문스님 후계자) 등 4인이다. 해각스님과 석정스님은 지난 92년 지정받았다.

만봉스님의 후계자로는 준보유자 박정자씨와 이인삼 홍창원 원미희 김장순 최문정 씨 등이 이수자로 그 맥을 잇고 있다.

첨단의 생명공학 기술과 전통의 동의학으로 탄생한
신개방의 비항생제성 항균 면역피부 미용 비누

(주)씨·티·에프 호서대학교 호서신기술센터 내

구입문의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02)732-1522(直)
(02)737-8881(代)

신토불이 무공해 오염되지 않은 피부! 신선한 자연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각종 유해 대기속에서 지친피부를 바라보는 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선한 자연속에서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 하지만 생활은 또 이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바쁜 일정속에서도 만족하고 싶은 자연의 美! 이제 세안·샤워하실 때 만큼은 항생제를 쓰지 않는 천연 무공해 항균 면역 피부 미용 비누를 사용하세요.

오브르린은 피부에 감염되는 병원균들에 대해 직접·간접적인 생리작용으로 항균효과를 발휘하여 주부습진, 비듬, 무좀등을 예방하고, 피부의 자연면역기능을 활성화 시켜줄 뿐만 아니라, 공해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을 피부로부터 배출시켜 항상 싱싱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첨단 생명공학천 건강미용 비누입니다.

- 항생제추출물(오미자, 구기자, 감초, 속지황, 천궁계피등) 첨가하여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무공해성 신토불이 비누
- 피부에 미백효과가 있습니다
- 99% 천연소재 사용
- 공해매연, 신성배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배출 능력이 우수합니다.
- 주부습진, 여드름, 가려움증(비듬, 무좀등) 예방에도 좋습니다.
- 항균·항진균효과(Antibacterial & Fungal effect)가 있어 피부에 자연면역 기능을 증진시켜, 장기간 사용시에도 병원균들이 내성을 갖지 않습니다.